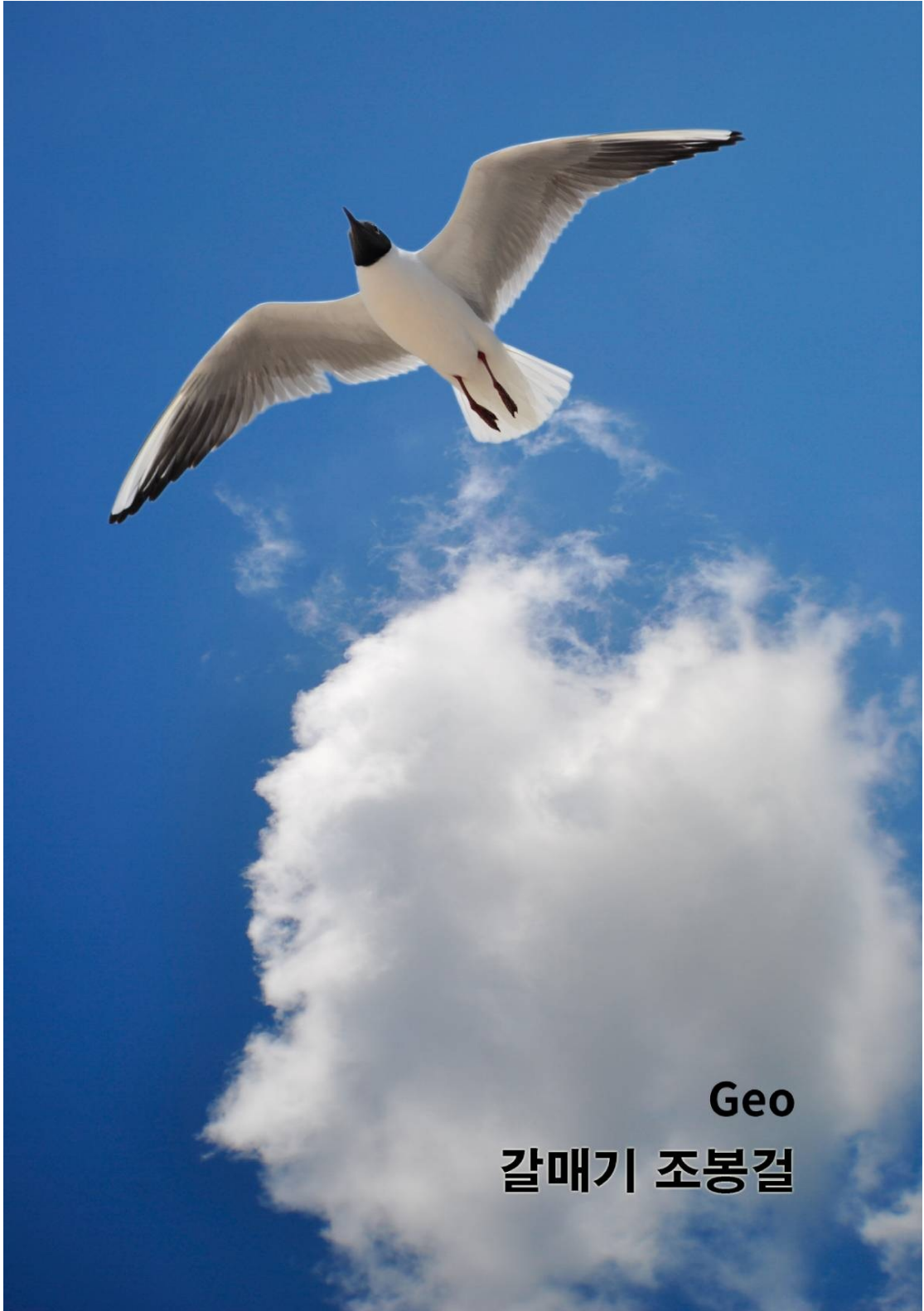




Geo

갈매기 조봉걸

갈매기계의 귀족, 조르쥬 본 길 (Georges Bon Gull)

한국에서는 그냥 조봉걸이라 부른다.

검은머리갈매기, 갈매기 사회에서는 흔치 않은 귀족 가문을 일컫는다. 검은머리갈매기는 흔히 볼 수 있는 갈매기가 아닌 탓에 예로부터 못 갈매기로부터 추앙받아왔고 존경받아왔다.

전설에 따르면 이들은 태양신의 사자로 불린다. 항상 태양신을 향해 날아야 하기 때문에 머리는 항상 태양을 향하여 있어야 했고, 그래서 머리만 새까맣게 됐다는 설이 있다. 물론 돌아오는 길엔 태양신을 등지고 날아야 했기 때문에 꼬리도 새까맣다.



그리하여 이들은 고대로부터 신의 사자로 불렸다. 중세까지 갈매기 사회의 왕족이나 귀족으로 살았으나 점차 몰락하여 봉건귀족이 무너지고 근세의 여명이 밝아오면서 그냥 검은머리인 갈매기가 돼버린 것이다. 옛 전설을 기억하는 늙은 갈매기들에게나 좀 인정받을 뿐, 어린 갈매기들에게는 머리가 검다고 세수도 안 하고 다니냐는 비아냥만 살 뿐이었다.

조봉걸은 몰락하였지만 귀족 갈매기로 자란 탓에 험한 갈매기의 사회로 나와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모든 것이 낯설었다. 고기 잡는 것도, 못 갈매기들과 어울리는 것도, 갈매기로서 잘 나는 것조차 힘들어 했다.

그에게는 항상 세상을 부딪치며 품게 된 수많은 의문이 있었다.

... 끊이지 않는....

수많은 의문들



알을 까고 나온 이들에게 숙명적 의문이 그에게도 들려왔다. 그에겐 좀 더 빨리 좀 더 자주 좀 더 끈질기게 들려온 의문이었다.

나는 왜 이 세상에 나와야 했는가? 왜 그토록 힘겹게 알을 깨고 나와서 모래밭에 던져졌는가?

나는 왜 갈매기로 태어나 갈매기의 날갯짓을 배워야 하는가?

왜 힘겹이 날아야 하고 늘 파도와 싸워 고기를 쟁취해야 하는가?

때론 걷고 싶고 때론 달리고 싶고 때론 수영도 하고 싶다. 하지만 갈매기는 갈매기답게 날아야 한다는 상식이 때론 걷기를 힘들게 하고 달리기를 불가능하게 하고 수영을 어림없는 행동으로 만들어버렸다.



이 날개는 어디를 가기 위해 필요한 것일까? 내가 갈 수 있는 곳이 있거나 한 것일까?

난 어디로 날고 있었던 것인가? 먹기 위해 날았던 것일까? 살기 위해 날았던 것일까? 서 있기 지켜워서 날았던 것일까? 못 갈매기들의 날갯짓에 영겹결에 난 건 아닌지? 이것이 나의 날개가 맞는지? 나의 날갯짓이 맞는지? 바람에 떠밀려 날리는 몸짓은 아니었나?

갈매기의 근본에 부딪혀 전혀 답을 내리지 못한 봉결이는 나는 것조차 망설여지기 일쑤였다. 이런 망설임이 잦아지자 나는 법까지 잊을까 두려웠다. 날개가 거추장스러워지기까지 하고 깃털은 윤기를 잃어가는 듯했다.



난 왜 다른 갈매기보다 높이 날지 못하는가?

높이 나는 것만이 갈매기의 이상이어야 하고 꿈이어야 하는가?

그보다 낮은 곳엔 갈매기의 삶이 없단 말인가?



저 넓디넓은 바다엔 내가 잡을 물고기가 있는 걸까?

과연...

다른 갈매기보다 허약하여 멀리 날지도 못하고 낚시 한 번 제대로 해보지 못한 봉걸이는 항상 배가 고팠다.

푸른 물살을 헤쳐 살찐 고기들이 펄쩍 뛰는 바다에서 갈매기들이 늘 그들을 낚아 하루의 끼니를 때우는 것이 갈매기의 역사라면 봉걸이는 그 역사의 가장자리에서 기껏해야 바다에 떠내려온 미역이나 주워 먹고 살았다.

그리 멀지도 않고 늘 들려오는 파도소리가 갈매기의 터전임을 쉬이 깨닫게 할 것 같지만 그 터전이란 곳엔 그의 발자국을 남길 만한 공간조차 없어 보였다. 쉼 없이 밀려드는 파도에 그의 자취는 끊임없이 삼켜지는 것만 같았다.

바다란 봉걸이에게 일상이 삼켜지는 공간이었다. 그리고 두려운 공간이었다.

파도의 고향은 늘 봉걸이를 힘들게 했다. 호통치는 듯 닦달하는 듯 바다로 나아가지 못하는 봉걸이를 조롱하는 듯도 했다.

못 갈매기들이 저 바다에 여유 있게 떠 있는 것이 신기하기까지 했다.

그에게 바다란 늘 의문의 공간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봉걸이는 문득 새로운 세상을 보게 되었다.



바다만이 세상이 아니었던 것이다.

바다를 향한 시선을 반대로 돌리자 거대한 도시가 보였고 거기엔 새우깡을 들고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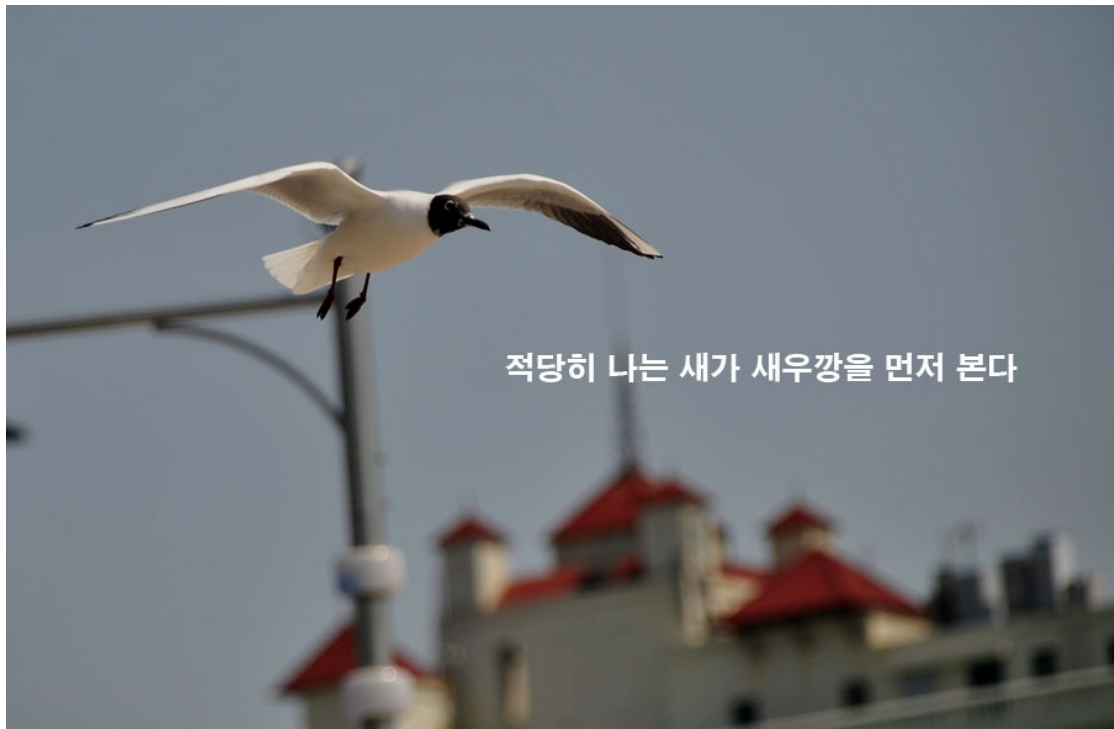


그가 본 단 하나!

그것이 진리였다!

봉걸이는 사람들이 주는 새우깡을 먹어 보았다.

그것은 태어나서 처음 먹어 보는 환장할 만한, 그야말로 천국의 맛이였다.



그렇다.

봉걸이는 문득 깨달았다.

남들처럼 바다에서 낚시만 한다고 나의 배를 채울 순 없었던 것이다.

다른 갈매기처럼 높이 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새우깡을 바라볼 수 있는 자신의 높이를 찾는 것이 중요했던 것이다.



그대의 새우깡이 보이면 날개를 펴라!
그것이 아무리 작고 하찮게 보일지라도...

그리고 그 새우깡을 향하여 한껏 날아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마치 그 옛날, 그의 선조들이 태양을 향하여 날았던 것처럼 맘껏 날아가면 되는 것이다.



봉걸이에겐 새우깡이 그만의 먹이였던 것이다.

그랬더랬다.

봉걸이의 가슴은 벅차게 뛰기 시작했다.

바다만이 갈매기의 터전이라는 믿음, 그것이 여태껏 그의 영역을 비좁게 만들어 왔었고, 갈매기는 물고기만 먹어야 된다는 착각, 그것이 그의 인생을 구속하고 있었던 것이다.

때는 21세기, 그 옛날 그의 선조들이 살던 세상보다 세상은 더 넓어졌고 갈매기의 꿈은 더욱더 끝없이 팽창하고 있었다. 다른 갈매기들이 해변에서 아옹다옹하고 있을 때 봉걸이는 갈매기의 무한한 세상을 보았던 것이다. 그것은 곧 새우깡을 넘어 갈매기의 먹을거리는 끊임없이 발견될 것이며 갈매기의 터전은 바다 너머로 무한히 열릴 것이라는 것이다.

응크리지 마라!

그대의 작은 날개짓에

세상이 펄럭일 것이다!



봉걸이는 드디어 자신감을 찾을 수 있었다.

그가 날아가는 모든 곳이 그의 세상인 듯했다.

그가 날자 모든 갈매기가 그를 따라 날았다. 그의 날갯짓에 세상은 이미 펄럭이고 있었다.

이후 봉걸이는 갈매기들에게 새우깡을 전파하여 갈매기계의 구세주(救世主)로 추앙받고 있다고 전해진다

~~~

그는 오늘도 새로운 새우깡을 찾아 전 세계를 누비고 다니고 있다~

# 갈매기 조봉걸

---

지은이     Geo  
출판사     GEO Books  
출판일     2013-04-14  
판매가격     1000원  
페이퍼명     GEO BOOK  
이메일     ceo@maplay.net  
주 소     지구  
편집인     Geo  
표지     Geo  
디자인     Geo

---

## 책 소개

외톨이 갈매기 조봉걸의 인생역전 대하드라마.  
갈매기이나 갈매기답게 살지 못하고 늘 우울한 나날을 살아가던 갈매기 조봉걸,  
어느 날 그는 새우깡을 발견하고 그의 인생은 완전히 새로워진다.

---

## 저자 페이지

maplay.net

---

전자책 오픈마켓 Maplay.net에서 만들어진 전자책입니다.

판매자 페이퍼 URL     <https://maplay.net/shopping/view.php?id=3>

---